

# 우리소설 연구에 깊이를 더한 성과들

가정소설 · 송사소설 · 인물전승 연구 등 의미 추적

## 소개영

승실대 교수 · 국어국문학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양대 전란을 겪은 후 18세기에 접어들면 우리 소설의 주조가 영웅소설, 염정소설, 가정소설의 성행으로 자리잡게 된다. 이 세 장르는 언뜻 보기에는 전혀 무관한 듯하나 내면적으로는 긴밀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 영웅소설은 전란 후 민족적 영웅을 갈망하는 시대의식에 따라 생성된 소설의 한 갈래이기는 하나, 그러한 영웅은 국가를 구출할 뿐 아니라 한 가정을 위난이나 몰락에서 구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정소설과 상통하며, 언필칭 군담의 과정에서 남녀간 혼사장이나 사랑의 성취와 연관되고 있으므로 염정소설이 전 소설작품의 절반을 상회한다고 할 수 있다.

### 가정소설의 주요 모티프 분석

여기서 먼저 다루고자 하는 것은 가정소설이다. 가정소설은 '지난날 봉건 가족제도의 구조적 모순과 가족 성원간의 이질감에서 야기되는 가족간의 갈등이 작품의 중심을 이루는 작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가정소설의 근래 두드러진 연구업적으로는 <조선시대 가정소설의 형성요인연구>(우쾌제), <조선조 가정소설 연구>(박태상), <가정소설의 구조와 전개>(최시한), <가정소설의 작품세계의 시대적 변모>(이원수) 등이 눈에 띈다. 이들은 모두 박사학위논문이라는 공통점을 지니며, 이는 이미 조선조 이래로 인간생활의 기본단위가 가정이며 그러한 가정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입증이기도 하다.

한편 가정소설이 공간적 폭을 확대하여 여러 가문간의 관계에 이르는 소설을 가문소설이라 명명하기도 하고, 현대 작품에 와서는 가족의 역사를 소설로 서술해 나간 작품을 가족사 소설이라 명명하기도 하고 있다. 최시한은 가족소설이란 포괄적 개념으로 고소설인 <사씨남정기>, 신소설인 <치악산>, 현대소설인 <삼대>와 <태평천하>를 동시에 통합적으로 다루어 가정소설 연구의 새로운 장을 열어보인 바 있다.

김귀석의 <조선시대 가정소설론>은 학위 논문을 보완하여 상재된 저술임을 서문 가운데서 밝히고 있다. 이미 여러 권의 근래 선행 연구업적이 있으나 여기서는 저자나름대로 가정소설의 소설사적 위상을 재확인해 보려고 한 노력이 엿보인다. 특히 가정소설의 주요 구성모티프인 죽음과 재생, 꿈의 수용 등이 작품 가운데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주요 등장인물들의 갈등관계를 통하여 가정소설 상호간의 변별성과 의미를 추적해 보고자 한 흔적이 엿보이며, 바로 이 점이 그 나름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 가족간 갈등 '송사'의 관점서 풀이

가정소설의 틀거리를 이용하여 가족간의 갈등관계를 송사라는 모티프에 집중시켜 다룬 연구성과로 이현홍의 <한국송사소설연구>는 1997년의 대표적 노작이라 할 만하다. 여기서 이른바 송사소설이란 '송사사건의 시말을 구조원리로 하여 전개되는 소설,

세권의 저서에는 우리 소설의 위상을 재확인하려는 노력이 보인다. 가정소설의 변별성을 추적한 책과 '송사'라는 모티프에 집중시켜 소설을 다룬 연구성과, 명승들의 서사적 전승을 기술한 책들은 각기 의미를 지닌다.

- <조선시대 가정소설론>/김귀석 국학자료원/A5신/298면/12,000원
- <한국송사소설연구>/이현홍 삼지원/A5신/456면/20,000원
- <한국서사문학사론>/김승호 국학자료원/A5신/462면/18,000원

즉 송사모티프를 이야기 전개의 중심축으로 하는 일련의 소설들'을 일컫고 있다.

저자는 김태준의 <조선소설사> 이래 공안소설이라 일컬어오던 명칭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송사소설이라 불러야 할 당위성에서 출발하여, 송사소설은 유형분류의 차원을 넘어서 갈래의 독자성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송사소설의 형성'에서 다루고 있는 작품은 설화의 소설화 부분에서 정수경전, 옥낭자전, 진대방전, 황새결승, 서대주전의 다섯 작품이며, 실사의 소설화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작품은 유연전, 김씨남정기, 홍열부전, 정효자전, 박효랑전의 다섯 작품이다. 동물우화소설도 가정소설적 범주에 포함시켰다.

더욱이 송사소설의 형성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중국 공안설화의 근원인 태평광기, 당음비사와의 관계를 추적하고, 중국 송사소설인 용도공안과 삼언이박과의 관계, 그리고 그러한 영향으로 우리 공안소설이 봉건적 조선조 사회에서 자생적으로 생성되었을 가능성을 추적하고 있다. 특히 저자의 고뇌가 엿보이는 곳은 송사소설의 구조를 유형화해 보인 부분과 각각 작품들의 갈등양상과 의미를 추적한 대목이라고 할 것이다.

과제해결의 서사구조를 단순형(서대주전), 중복형(까지전), 액자형(황새결승), 병렬형(김씨열행록), 복합형(정수경전)으로 구분하고 다시 결말구조를 원억형(한과 비판의식), 신원형(축제적 놀이마당), 화해형(반성과 교화)으로 나눈 것이 용어의 선택면에서 다소 무리가 뒤따르고 있지만 처음 시도되는 이러



## 호글96 · IBM 분판 전문출력

· 4도·2도분판, 단도, 레이저프린트  
- 호글96 및 도스버전, 코렐, 포토샵,  
MS워드, pagemaker, 훈민정음-

- PC로 입력한 data 편집출력
- 한자 및 고어 100% 지원
- 국내의 모든 서체보유

※상담환영 (강종욱 실장)



삼화전산 sawh  
천리안 하이텔  
전화 263-2651~3 모뎀 277-8097.8

### 이런 분을 기다립니다

- 호글96의 출력이 안된다고 알고계시는 분
- 호글을 이용한 조판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분
- 호글이 불편하게 생각 되거나 기능에 자신이 없는 분
- 호글을 이용해 조판을 시작하려는 분
- 호글을 이용해 칼라인쇄를 하려는 분
- 한자 및 고어, 각주가 많은 책을 만드는 분
- 소설책 편집에 하루이상 시간을 허비하는 분

한 유형화가 송사소설 전반을 구획하여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만하다.

갈등양상을 구분함에 있어서도 신분간의 갈등을 다룬 신계후전과 양반전, 가족성원간의 갈등을 다룬 김씨열행록과 장화홍련전, 향촌사회의 계층간 갈등을 다룬 작품으로 황새결송·서대주전·까치전, 권력형포의 저항을 다룬 작품으로 유연전·박효랑전, 관습규범의 극복을 다룬 작품으로 정수경전을 제시하고, 이러한 다양한 갈등양상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전체 송사소설의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 점은 본 송사소설연구의 깊이를 더해주고 있는 부분이라 할만하다.

작품이 개별적 분석에만 머물지 않고, 말미의 '송사소설의 사적 전개양상'은 송사소설들을 다시 통시적 배열을 통하여 시대적 자리매김에까지 이르게 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설이 유행하였던 조선조 사회의 사회사적 의미망을 확장해 보여주고 있다.

### 초기 승전의 서사구조 특징 서술

이헌홍의 《한국송사소설의 연구》는 가정소설과 우화소설을 통하여 문제의 해결을 당사자들이 아닌 제삼자를 통하여 해결하는 이른바 송사모티프를 심도있게 다룬 근래 보기도문 연구성과임에는 틀림없다. 이는 비록 당대의 소설 연구에만 국한하지 않고 오늘날 가정뿐 아니라 사회구성원간의 갈등과 이해관계가 첨예화하고 이의 해결을 위하여 복잡한 송사관계에까지 이어지는 현실사회와도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러나 제한된 자료에다 송사모티프가 지니는 의미를 작품 분석을 통하여 명징하게 밝혀내지 못한 점이나 송사모티프의 자생적 발생설을 뒷받침할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지 못한 점, 가정소설에서의 갈등관계를 전통사회의 자생논리에서 찾아보아야 할 사실을 논리적으로 해명해내지 못한 점은 앞으로 남은 과제라고 할 것이다.

김승호의 《한국서사문학사론》은 저자가 일찍부터 관심을 가지고 기술해온 인물전승연구의 글모음이다. 저자는 이미 박사학위논문으로 《한국승전문학의 연구》를 저술한 바 있는데, 이 책은 이것과 관련하여 이후에 논문으로 썼던 몇편들을 모아 엮은 것으로 보인다.

목차를 보면 크게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역말선초와 역사문학'에서는 현수전·균여전의 두 인물전을 통하여 초기 승전의 서사구조의 특징을 보이고, 범일·도선 두 인물의 전승을 분석하고 탄생담에서 종생담 후대의 전승에 이르기까지 신화소의 개입을 서사문학적 논리로 서술하고 있다. '역말선초의 전기류'에서는 보우와 이색의 경우를 들고 있으며, '임진왜란과 불교설화'에서는 사명당설화를 비롯하여 야담소제의 승려설화, 폐사설화 등을 통하여 역시 명승들의 서사적 전승을 기술하고 있다.

《한국승전문학의 연구》는 그 나름대로 불교적 인물전승의 이론과 논리적 근거가 확보된 저술이었으나, 이 책은 그 연속선상에 있으면서도 이미 다른 의도로 쓴 글들이 무

리하게 짜맞춤되는 바람에 오히려 전술한 논리의 근거마저 흔들리는 착종과 혼란을 가져온 듯한 느낌이다. 두 저술간의 내용 중복도 문제로 지적된다. 결미에 '근대이행기

의 고소설'을 첨부한 것은 같은 성격의 다음 저술로 미루었어야 했다. 전자에 이은 인물전승의 공들인 노작임에도 불구하고 미진함과 아쉬움이 남는다. ❖

### 자료

#### 간행물윤리위원회 청소년 권장도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 권혁승)는 책 35종을 제28차 청소년 권장도서로 선정, 발표했다. 선정된 목록은 다음과 같다.

▲문학 《안동 시편》(이태수/문학과학지성사) 《흰 소가 끄는 수레》(박범신/창작과비평사) 《나의 사랑 슈테가르디》(게르트호프만/안영란/찬섬) 《이세상의 모든 빛깔》(고트프리트 보만스/이영희/새로운 사람들) ▲역사 《페이건 교수가 스케치한 고고학 풍경 29가지》(브라이언 페이건/남경태/일빛) 《곰브리치 세계사(1·2)》(곰브리치/강성호/자작나무) 《화랑 세기》(김대문/조기영/장락) ▲정치 《근대시민사회사상사》(홍사중/한길사)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여든가지 물음》(데이비드 비담/이창호/오름) ▲경제 《유패한 경제학》(토드 부크홀츠/이성훈/김영사) ▲경영 《나는 이렇게 경영했다》(吉田忠雄/김욱/성안당) 《마이크로소프트의 비밀》(마이클 쿠스마노/삼성경제연구소) ▲사회 《정보사회의 이해》(권태환 외/미래미디어) 《네트워크 트랜드》(경희대 정보사회 연구소/삼성경제연구소) 《카오스의 아이들》(더글라스 러시코프/김성기/민음사) ▲철학 《관용과 열

린사회》(김용환/철학과현실사) 《소크라테스 최후의 13일》(모리모토 데츠로/양역관/푸른숲) 《파스칼》(장 메나르/변규용/서강대학교출판부) ▲과학 《100년만에 다시 찾는 아인슈타인》(임경순/사이언스북스) 《과학의 여왕:수학》(E.T벨/이무현/경문사) 《물리, 가볍게 뛰어넘기》(최경희/동녘) ▲예술 《뜻으로 풀어 본 우리의 옛그림》(허균/대한교과서) 《말과 음악 그리고 그 숨결》(서우석/문학과학지성사) ▲교양 《그렇다면 도로 눈을 감고 가시오》(박지원·김철조/학고재) 《반쪽이 부부의 작은 세상》(변재란·최정현/한겨레신문사) 《문화유산에 담긴 한국의 미소》(김대성/대한교과서) 《아름다운 우리말 찾아 쓰기 사전》(김정섭/한길사) 《우주선과 카누》(케네스 곤잘레스/이교선/창작과비평사) 《마더 테레사-말씀》(루이스 곤잘레스/황애경/디자인하우스) ▲아동 《내마음의 한 조각》(로버트 뉴튼 펍/안종설/집사재) 《돌아온 진돗개 백구》(송재찬/송진현/대교출판) 《산골 아이》(황순원/가교) 《오이대왕》(크리스틴 너스트링거/사계절) 《옥이야 진메야》(김용택/한양출판) 《춤추는 눈사람》(김병규/문원)

한글출력의최고보상화면안 한글출력의최고보상화면안 한글출력의최고보상화면안 한글출력의최고보상화면안 한글출력의최고보상화면안 한글출력의최고보상화면안

한글출력의최고보상화면안 한글출력의최고보상화면안 한글출력의최고보상화면안 한글출력의최고보상화면안 한글출력의최고보상화면안 한글출력의최고보상화면안

# 한글 96

## 2도/4도 분판출력

한글출력의최고보상화면안 한글출력의최고보상화면안 한글출력의최고보상화면안 한글출력의최고보상화면안 한글출력의최고보상화면안 한글출력의최고보상화면안